

명의신탁주식 최적의 해결방안


법인 설립시에 발기인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별다른 생각 없이 명의신탁한 주식들이 시간이 너무 흘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지고 주가가치도 훌쩍 올라 결국 되찾아오지 못하고 고민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명의신탁주식...** ”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정리해야
기업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의 문제점은 차명주주의 변심이나 차명주주의 사망시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리스크 이외에도 차명주주의 채무관계로 명의신탁주식까지 압류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명주식 (명의신탁주식)
무엇이 문제인가요?**

- ✓ 소유권 분쟁
- ✓ 차명주주의 채무문제로 명의신탁 주식 압류
- ✓ 자본거래 위험성 또는 제약 (배당, 증자시)
- ✓ 기업승계시 장애요소

과거 주식 차명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 상법상 발기인수 요건 때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회피
- ‘주주를 여럿 두면 좋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
- 기타...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명의개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과거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수단으로 종종 이용되었습니다. 게다가 2001년 이전에는 회사 설립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인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배경은 다양합니다.

차명주식 환원방법

1

『명의신탁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한
명의신탁계약 해지

가장 간단한 방법이나 신청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자료를 갖추었을 때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판결로
명의신탁계약 해지

차명주주와의 소송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명의신탁임을 인정받고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입증자료가 충분할 때 가능합니다.

3

증여 및 양수도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차명주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현재시점 주식가치로 차명주식을 증여 받거나 사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자기주식취득 및
법인증여

실제 소유자 대신에 법인에서 자기주식취득하거나, 법인이 차명주주로부터 증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입증이 어려워

증여 또는 양수도의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 주가가 낮을 때 그리고 가업승계 계획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도 잊지 말고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차명주식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명주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에서 검토해 보고 해당 법인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